

'집이 뒤틀고' 평생 붙잡은 화두

산문박의 禪

목수 신영훈 씨

집은 지을수록/탕빈 항아리/나무를 베고 흙을 짓이겨/대를 세우고/기왓을 올릴수록/비어만 간다/및 차례의 풀무를 거치고/담금질/노동통을 통하여/단단히 구울수록/비인 집엔 어둠만 깊다./우두커니/바람벽 떨리는 소리를 들으며/지붕을 보니/박꽃 필 듯한/하늘이 내린다.

(김신중 씨 '집을 짓다')

송광사 석굴암 화엄사 금산사 등 하고많은 절집을 지으면서도 정작 그는 그곳에 살지 않는다. 집의 형태가 갖춰지면서 그의 마음은 사인이 노래한대로 '우두커니 비어만 가는' 것은 아닐까.

號도 나무 '木' 목숨 '壽'

아니다. 집 한채 짓고 마을 한구석은 그만큼 비어가면서도 그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천연스러운 조화의 꿈을 담아내는 집, 뒷산을 담은 지붕을 이고 용마루의 늘어진 곡선이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집을 그는 마음속에 세우

그만큼 그는 이 삶에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 더없이 행복하다.

집짓는 일을 해온지 올해로 36년이다. 그 정도의 세월이면 제법 문리가 터졌겠으나, 그는 "집 속의 사람과 집이 함께 보인 것이 이즈음이나 아직 멀었다"고 한다. 당간지주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누군가 바위를 다듬어 세웠을 것인데, 무슨 도구로 다듬었는지, 무엇으로 운반했는지, 수평·수직은 무엇으로 어떻게 맞췄는지 궁금증은 많은데,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은 몇이나 되었어요." 집도 마찬가지로라.

"36년의 역사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우리 땅 구석구석에 조상들의 노동의 숨결이 배어 있어요. 이것을 밝혀내어 지혜로 삼을 줄 알아야 비로소 집다운 집을 짓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조상들의 지혜와 세계관을 집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일이 집짓는 일과 더불어 그에게 맡겨진 또 하나의 몫이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닌다. 멀리 바다 건너 외국에까지 다녀온다. 집



한옥짓기 36년 외길... "걸핌기 멀리하고 만사 충실"

고 있는 중이다. 그의 직업은 목수이다. 사람들은 그를 '절짓는 사람 신영훈'으로 부른다. 목수일 뿐인데 그렇게 불러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직함은 문화재전문위원, 또 하나는 '목수 한옥연구소 소장'.

집지를 때 나무로 하는 분야의 책임자를 가리키는 목업행수(木業行首)라는 직책이 있다. 한 시대에 몇 사람뿐이다. 그 말에 좌편수 우편수 목수가 있다. 그 위에 목업지유(木業知識)가 있다. 옛날에 임금님 앞에 나아가 집짓는 일을 아뢰던 사람이다. 목수 신영훈이 여기에 해당된다.

호(號)도 나무, 목숨 '壽'자를 써서 '목수'다. 부여박물관을 지냈던 홍사준 선생이 지어주었다. 울데갈데 없이 목수라는 의미로 지어주신 것이다. 그도 같은 생각이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내가 쪽으로 다시 이 땅에 못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부에 계신 분들이 '저는 평생 좋은 것 다 했으니 여기 계시고 내가 그 일을 해야겠어' 하고 대신 내려갈 것 같아."

보러 다니기 위해 서다. 이번 달에도 일본에 다녀올 작정이다. 그냥 보고만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뒤틀고' 하면서 본다. 구산스님이 일러준 방법론이다.

"다섯 사람이 창덕궁에 갔다 합니다. 똑같이 보았으나 '이 뒤틀고' 하면서 바라보는 눈에는 보았던 건물이 필립에 달기 듯 재빨리 다. 마침찍은 부분과 덜 본 부분이 보입니다. 다시 봐야죠.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 뒤틀고'는 최상의 방법론입니다. 내부로 향하는 눈입니다. 집짓는 일 뿐 아니라 모든 일에 통하는 방법론입니다."

구산스님은 그에게 지인(智圓)이라는 법명을 주셨다.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말씀이 돌아가셔서 알 도리가 없다. 다만 그 뜻을 그 나름대로 풀어본다. 왜 그렇게 어렵고도 고상한 이름을 지어주셨나 싶어 여러가지로 궁리하였지만 확

"용마루 늘어진 곡선이 아름다운 뒷산을 담은 지붕 올리고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집다운 집 구상중"

연하게 의미가 떠오르지 않았다.

"어쩌면 진지(眞智)할 수밖에 없는 팔자소관이 평생 두고 공부해 해야 할작이면 걸핌기에 만족하지 말고 깊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비로소 진지(眞智)를 깨달은 지혜를 얻게 되면 게을리하지 말고 그로부터 만사가 충실하면 불림없이 원명(圓明)하여 질 터이라는 뜻에서 지어주신 이름인 듯해요."

잘지은 집보러 전국만행

살아온 날의 절반쯤은 절집을 먹은 그이지만 정작 불교는 그에게 여전히 대하기 어렵고 송구스러움이 앞서나

보다. 계발는 날 아침 풍경이 그러했다.

새벽에 깨어 정제하고 법당 앞에 나아갔다. 아직 한 번도 정식으로 아침에 불에 참예해보지 않았던 터라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마당에서 빙빙 돌다가 돌아섰다. 법당의 문은 열어보지도 못하고 마당에 서서 겨우 반배만 세번 드리고는 도망치듯이 지정된 방으로 와서 담배를 피워놓고 있었다.

물아와 죄정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느닷없이 문이 벌럭 열리더니 예 불을 마치고 바로오신 듯 가사를 입으신 채로 구산스님이 들어오셨다. 그 특유의 웃음을 보이시더니 방을 한바퀴 돌아다보시고는 "있다 아침먹고 내 방에 좀 오시게나" 하신다.

그리고 '이 뒤틀고'란 화두를 주셨다. 평생 두고 이 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과제이다. 그는 자신이 없었지만 '에'라고 대답부터 했다. 그날 이후로 '이 뒤틀고' 대신 '집이 뒤틀고'를 평생의 화두로 붙잡고 있다.

정성은 기사



삽화·이기선

염라지옥 죄질따라 처벌엄격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여야 한다. 법에 처벌상이 있으면 그것은 법이라 할 수 없다. 한문으로 '水來水去' 하는 모양을 따서 '법'이라는 글자가 나왔다. 물이 흘러가는 모양이다. 물은 습윤의 기운이 있으므로 평지에서는 머물지만 비탈이면 흘러가게 되어 있다. 항우장사가 막으려 해도 흘러가는 물은 막을 수 없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습성의 평등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가 법원 주변에서 나돌았다 하고, 또한 권력 있는 사람이 수감되면 특별히 별실에서 생활하게 한다 하니 이상한 법이다. 죄있는 자, 범죄를 저지른 자가 교도소에 수감될 때는 동일한 법규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니 죄질이 무거우면 더욱 가혹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정착으로 되어야 한다.

불교의 지옥설에는 염라(閻羅)라는 것이 있다. 염라대왕이 사왕(十王)을 거느리고 죄업중생들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다. 염라대왕은 언제나 염라부(閻羅府)에 세살 살고 있는 일체 중생의 이름을 명기하여 두었다가 그 사람의 생명이 다하면 사자를 보내어 염라국으로 불러 들인다. 불리아 온 사람은 염라왕에 의하여 판결을 받게 된다. 세상 살 때 적선하여 보살행을 한 사람은 서방정도로 보내고 죄질이 간악하고 모든 사람을 압박하고 곤궁하게 한 사람은 화당, 발살, 독사 등의 지옥으로 보내게 된다. 염라국의 지옥은 평등하다.

지옥은 죄질에 따라 그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옥 옥중에 인정을 넣어 좋은 자리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옥 옥중은 엄격하다. 지옥이라고 하여 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옥에도 질서가 있는가 되려면 대답할

스럽게 하였고 나라를 마치게 하였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은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한다. 너희 나라는 올림픽을 개최한 일등 국민이었는데 올림픽을 개최한 그 대통령이 저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기가 막힌다고. 이런 말을 들은 교포의 심정은 어떠할까. 나라인에 살고 있는 사람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인데 교포의 심정은 어떠할까. 안팎이 좋아야 한다. 번드레한 길은 옳은 것이 아니다. 까칠한 바위라도 쓰임새가 알맞아야 한다. 맑을이란 누구나 가져도 부끄러운 것이다. 교포에게 희망을 주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 미국 주간지 포지에 '한국인의 수치'라고 한 것은 당사자 한 사람의 수치가 아니다. 북수령의 명사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줄 수 없는 형무정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이니 적당히 하는 처치는 천부당한 일이다.

‘의왕 콘도’ 국민정서 외면한 것

것이 있다. 지옥은 엄격한 구별이 있다. 죄질에 상응하는 지옥이 설정되어 있고 그 죄값을 받을 만큼 고통을 받아야 함으로 엄격히 준비되어 있다. 오히려 인간세계의 형무제도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야박한 간계를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앞뒤로 저를 질하고, 옆눈질하는 사시적 한계가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팔뜨기의 눈짓으로 세상을 요리하려고 온갖 회혼과 꾀변을 늘어 놓는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의왕 콘도에 노태우씨가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얼마나 기막힌 분통인가. 대도는 무죄인가. 아니다. 대도는 민족을 수치

을 줄 수 없는 형무정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이니 적당히 하는 처치는 천부당한 일이다. 국민은 이제 속지 않는다. 다만 속는 척 하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가장 적절한 일이 국민앞에 다가오면 그때만 거부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은 염라대왕의 처벌을 배워야 한다. 지옥의 옥중보다 더 앙심을 가지고 법을 운용하여야만 구치소, 교도소, 감호소에 있는 죄수들이 수감할 것이다. 수감되지 않는 행방범은 염라를 깔보는 일이다. 여기저기 염라의 명부에 오른 사람들이여, 바로 사자가 찾아올지 누가 알겠는가.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그리움

두렵던 그 여름도 가고 가을 들녘 바람결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의 청초한 멋스러워 고운 자태의 러질 것 같은 그리움이 아픈 사연으로 속세를 방황하는 목마른 목경 소리 되어 홀로 아픈 가슴 문고 소수한 바람은 가슴 속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아리도록 짙어지는 목탁소리 기다림의 끝머리에 서서 외로운 고독으로 나를 감싸안을 때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정겨운 얼굴은 나의 빈가슴으로 채워질 때 어느새 가슴 한 구석 가만히 새겨지는 그리움 하나 사랑하는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이자임 결혼 연구원으로...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히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 無生子)

농협은라인구좌 : 112-01-021221 예금주 이영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불교문화의 세시대를 선도하는 - 불교텔레비전

한국불교의상 예술제

승복, 개량신도복, 상복, 한복 및 개인 유명브랜드

■ 일시: 1995. 12. 14(목) 오후 2시

■ 장소: 부산 KBS 홀

■ 주최: 부산불교텔레비전

■ 주관: 부산불교텔레비전 후원회

■ 후원: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산불교 신도회
BBS 부산불교방송
불교계 각 언론사

■ 협찬: 원복사, 이숙희 컬렉션, 오리강, 레빌롱, 유나 혼수방, 양지한복, 아리랑 주단, 고려주단

btn

불교TV 32

부산불교텔레비전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60(동양빌딩)

전화: (051) 645-5114, 1271

팩스: (051) 631-1772

불교 의상 현대화 작업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부대중을 위한 일입니다.

* 채널 '32'는 서른두 가지 수승한 모습으로 정법(正法)을 들어보신 부처님의 32상(相)과 서른 두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어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의 32응신(應身)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